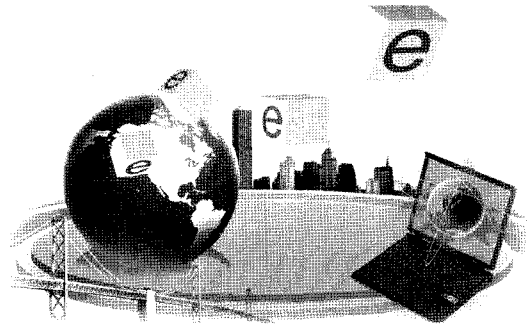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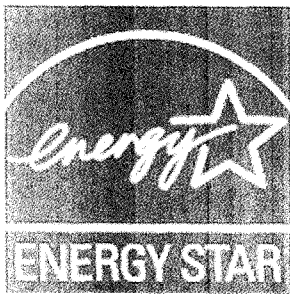


대미수출 가전 적신호



미국 소비자들이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TV 등 주요 가전제품 구입시 중요한 구입 기준으로 여기는 우수 에너지 효율 마크인 에너지스타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Energy Star는 '92년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가 공동 도입한 우수효율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로서 컴퓨

터·TV·냉장고·에어컨·세탁기·보일러·변압기 등 53개 품목이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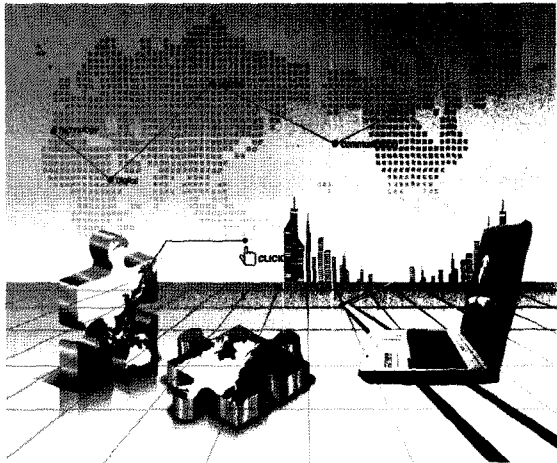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는 '09년 이후 경제회생 입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근거한 세금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에너지 스타 마크는 기업들의 판매

전략에 필수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10.4.14 美환경청(EPA) 및 에너지부(DOE)는 에너지스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마크를 부착하던 기존 방식을 ⇒ 제3자 시험소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EPA에 제출하여 평가 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0.5.3, EPA는 상기 개편안과 관련하여 시험소 및 시험소 인정기구를 승인하는 기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추진 일정을 발표하였다.

시험소는 EPA로부터 직접 심사/지정을 받거나, 시험소 인정기구 간 국제적 상호인정협약인 ILAC-MRA에 가입한 인정기구 중 EPA가 승인한 기구가 인정한 시험소로 한정하였다. ILAC란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이다.



'10.11.30까지 관련 승인 절차 정비를 완료하여 '11년부터는 모든 제품에 대해 신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10.12.31까지는 기존의 마크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스타 마크 대상 주요제품의 대미 수출규모는 20.8억\$('09년)로서, 금번 제도 개편 시 미국 내 시험기관만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추가부담은 연간 150만\$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통관 기준으로 멕시코 등 해외공장 및 미국 현지공장 생산액을 포함시 가전 3사의 수출액은 약 143억\$이다.

또한 에너지스타 마크를 적기에 받지 못함에 따라 입을 수 있는 판매저하에 따른 손해는 5.2억\$ 이상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내 통관 제품만을 고려한 것으로 지연 가능기간의 최소값(3개월) 적용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의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아 T/F를 구

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KOLAS(국내 시험소인정기구)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美 EPA의 에너지 효율측정기준에 따라 KOLAS의 시험기관 평가사 제도 및 인정체제 등을 정비해 나간다.

에너지스타 대상품목 중 우리기업의 주요 관심 품목 16개를 우선 선정하고 KOLAS가 이에 대한 시험소 심사 및 세부 기술기준 분석을 주요 시험연구원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기술표준원 관계자가 밝혔다. 주요시험연구기관은 조명기술연구소,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다.

아울러 EPA의 제도 개편에 기업이 대응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美정부측에 시행연기를 요청하고, EPA측의 시험소 및 시험소인정기구 심사 기준(안) 등이 'EPA에 대한 보고의무', '평가과정 참관허용' 등의 부분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美 EPA측에 전달하는 한편, 일본·중국·EU와의 공조 및 ILAC등 국제기구에서의 협의를 병행함으로써 EPA측 심사기준안의 완화를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 대형 전기·전자 제품 이외에 조명기기·유리창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 조치와 별도로 각 기업들은 미국측 제도 변경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세부 기술기준에 대해서도 속

지하여 향후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한 에너지스타 인증 루트를 개발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의 절전형 가전제품에 대한 지원 제도를 살펴본다. 미국은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권장하고 가전제품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의 제도를 시행한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세금 혜택에서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에 근거하며, 미국내 공장에의 법인세 경감혜택, 에너지 또는 물의 효율 등급에 의거 차별 지원한다.

식기 세척기는 \$45 또는 \$75, 세탁기는 \$75 ~ \$250, 냉장고는 \$50 ~ \$200이다.

캐시 포 어플라이언스(Cash for appliance) 제도란 친환경(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 정부가 소비자에게 냉장고는 300\$, 세탁기는 100\$, 에어컨은 50\$ 정도를 환급하는 것이다. 메일 인 리베이트 시스템(mail-in rebate system)으로 환급처리된다.

총 3억\$의 지원금을 각 주정부에 분배, 주별로 각기 시행하고 기금 소진시까지 실시한다. 일리노이(650만 \$; 4.16 시작, 11시간동안 시

행), 플로리다(1,750만 \$; 4.16 시작, 36시간 동안 시행)는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 스타 가전제품에 대해 2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기존 제품 재활용 고객들에게 추가로 75\$를 지원한다.

아이오와 (280만 \$)는 냉장고 최대 100\$, 세탁기 최대 200\$ 지원하며, 캘리포니아(3,530만 \$; 4.22 시행), 버지니아 (745만4000\$), 메릴랜드 (540만5000\$), 워싱턴 DC (56만8000\$) 등이다.

삼성, GE, 월풀 등 13개 냉장고 브랜드와 대우, GE, LG 등 18개 세탁기 브랜드, LG, 파나소닉 등 25개 에어컨 브랜드가 해당된다.

기타 개별 기관별 지원에서는 LA 수도전력국 및 에디슨 사(남가주 전기회사)가 오래된 냉장고를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냉장고로 바꾸는 소비자들에게 10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에디슨 사는 에너지스타 인증 에어컨에 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Southern California Gas Company(남가주 가스회사)는 친환경 세탁기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35\$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미국의 그린전자제품 (Green Consumer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4년(예측)
매출액(백만 \$)	89,930	91,000	87,000	84,000	93,900
연간성장률(%)	3.8	1.2	-4.4	-3.4	-
연관기업수(개)	39,844	39,796	35,132	33,264	-

* 자료 출처 : IBIS World Industry Report

Electronics) 시장 동향이다. 시장 규모 및 구성 비에서 미국 전자제품 소매시장 추이를 보면, 미국 전자제품 소매시장은 2008년 약 870억\$ 규모로 세계 금융위기로 전년대비 감소되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회복되어 2014년(939억\$ 규모)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구성 면에서 신규 구매가 60%, 기존제품 대체구매가 40%를 차지한다. 제품군별 시장 비중은 TV, 백색가전, 컴퓨터 분야가 각각 31, 29, 17% 점유한다.

TV, 비디오 분야의 비중이 2000년 18.4%에서 31%로 증가되었는데, 2009년 공중파 TV의 디지털방식으로의 전환 및, LCD, 플라즈마(PDP), LED TV 등의 빠른 가격하락에 기인하는 바, 향후에도 비중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백색가전의 제조사별 미국 소비자 만족 순위는 우리 제품이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돼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는 추세이

므로 에너지스타 인증 등을 통한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크다.

미국 가전제품은 수입이 수출보다 3~4배 더 많아서 매년 약 50억 \$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특히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수입 비중이 높다.

미국 가전제품의 수출은 2007년 20억5000만 \$, 2008년 18억6300만 \$이며, 수입은 2007년 75억2000만 \$, 2008년 66억5000만 \$이다. 수입시장에서 TV, 컴퓨터는 한국, 일본, 대만제품이며, 냉장고는 멕시코, 에어컨과 진공청소기는 중국, 건조기와 세탁기는 한국, 소형가전은 중국제품이 많다.

친환경(그린) 전자제품 관련 미국내 동향을 보면, 소비자들이 그린제품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 요인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인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인지 또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인지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인다.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옳은 일이기 때문(69%)과 에너지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63%)라고 응답한다.

전체 응답자의 89%는 향후 TV 구매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응답자의 53%는 TV를 구매할 경우 에너지 절감 등과 같은 추가기능에 대하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 정보 관련에서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인지 여부를 쉽게 판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며, 특히 로고나 인증 그리고 자세한 제품 설명을 선호하였다.

제품명 (자료 출처 : IBIS World)	매출 비중(%)
TV, 비디오	31.0
백색가전 :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29.0
컴퓨터 : PC, 노트북, 소프트웨어	17.0
오디오	10.4
사무기기 : 복사기, FAX 등	9.9
기타	2.0
소형가전 : 헤어드라이어, 전동칫솔, 믹서, 토스터, 커피메이커 등	0.4
주방기구	0.3

순위	냉장고	세탁기	세탁건조기	전자레인지
1	삼성	삼성	삼성	LG
2	Whirlpool	LG	LG	Frigidaire
3	LG	Kenmore	Kenmore	Kenmore
4	Kenmore	Fisher&Paykel	Bosch	GE
5	KitchenAid	Bosch	GE	Kitchen

* 자료 출처 : JD Power, 2009 Home Appliances Study

친환경 제품 구매시 정확한 친환경 관련 성능과 성분에 관한 세부 정보를 입수하길 원하고 있어 친환경 제품포장에 가능한 자세한 제품 정보를 표기를 희망하였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의식을 반영, 2008년에 새로 출시된 가전제품 중 에너지스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전체에서 55%를 차지하는 바, 에너지스타 마크의 공인 기관 인증 획득이 판매 확대에 필수적이다.

주요제품의 대미 수출규모 및 인증 애로에서 대미 수출규모가 '09년 국내가전 3사의 에너지스타 대상 주요제품의 대미 수출규모는 국내 통관 기준 20.8억\$이며, 멕시코 등 해외공장 및 미국 현지공장 생산액을 포함시 가전 3사만 약 143억\$ 이다.

KOLAS 미이용시 인증 추가부담 예측을 보면, 인증비용 추가부담은 가전 3사가 각사별 연간 40 ~ 60만\$ 추가 소요(총 150만\$)된다.

(단위 : 백만\$)

구분	가전3사 전체(해외공장 포함)			우리나라 전체 수출 통관 기준
	A사	B사	C사	
TV	9,600			762 (display 포함)
Appliances Product	1,200	2,000	10 (잠정치)	163
Home Electronics	600			56
Office Equipment	900			261
조명기기				16
합계	12,300	2,000	10	2,084
	14,310			

* 09년 대미 수출 통관실적

(단위 : \$)

항 목	KOLAS 이용시*1			미국내 제3자 인증기관 이용시			비고
	단가 (Model당)	Model 수	금액	단가 (Model당)	Model수	금액	
시험비용	-	-	-	10,500	30	315,000	
Sample비				1,000	30	30,000	
운송비	-	-	-	3,000	30	90,000	
KOLAS 시험소 인증비	4년 (갱신주기)	-	20,000	-	-	-	
연간비용계			5,000			435,000	

* 주1. 대기업의 경우 각사별로 인증받은 자체 Lab에서 시행하며, 모든 시험항목은 인증 목적 이외에도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행되므로 추가 시험비용 없음.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밖의 국내 KOLAS기관 이용시 모델별 3200\$의 시험비가 소요되므로, 비용 증가액은 약 340,000\$

30개 model의 경우 인증비용 추가 산출 예이다. 연간 43,000\$ 추가 소요된다.

인증소요 기간 지연 부담을 들 수 있다. KOLAS 자체시험소 인증대비 최종 제품의 Spec 결정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면 2~3개월 정도의 지연이 예상되며, 경쟁사(미국 현지 maker : WP, Maytag) 대비 선적기간을 추가 하면 4~5개월 정도의 지연이 예상된다.

인증 지연 Risk 사유로 미국내 Qualified 자

격 갖춘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의 개수가 적다. 제조자 Lab. 인증Program 초기단계에서 미국 인증기관의 Load로 인한 일정지연 및 미국인증기관 내에 Qualified된 엔지니어 수 (최근 국내업체가 냉장고 EPA 대응시 경험)가 많지 않았다.

인증지연에 따른 판매감소 금액은 5.2억\$이고, 국내 통관기준 연간 수출액(20.8억\$)의 25% (3개월 지연)를 산정한 것이다.

